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7월 22일(수)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일대를 방문하여 여름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응답 가구를 직접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가 고용통계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준 응답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가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다. 안 처장은 응답자들의 애로사항과 생활 실태를 세심히 살피는 한편, 쌀과 과일, 폭염·장마 대비 안전꾸러미 등을 직접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고용 및 실업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국가 승인통계로, 국가 고용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응답자들의 성실한 참여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가 데이터처는 응답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조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장마 속에서도 매월 빠짐없이 조사에 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고용의 현실을 정확히 담아내는 통계가 만들어진다”라며, “국민의 응답이 곧 국가 정책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만큼, 응답자분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살피는 것 역시 국가데이터처의 소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황호숙 (042-481-2044)
		담당자	서기관	송진실 (042-481-2347)



-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폭우 속에서 서울 광진구 응답 가구를 만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응답 가구를 만나 통계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사 참여를 당부하였다.